

민법(친족상속법제외)<선택>

2013년 시행 5급(행정) 공채 제2차시험

응시번호 :

성명 :

제 1 문. 甲은 친구인 乙이 甲에게 인감도장과 X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맡겨두고 이민을 위한 사전조사차 외국에 체류하고 있음을 기화로 서류를 위조하여 X부동산을 甲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,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는 丙에게 X부동산을 매각하고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 (총 20점)

- 1) 甲과 丙 사이의 계약과 소유권이전의 유효성 여부를 논거를 들어 설명하시오. (10점)
- 2) 乙이 귀국해 서둘러 해외이민을 추진하기 위해 재산을 정리하려다보니 국내 부동산거래 시장이 위축되어 전혀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. 마침 甲이 이미 X부동산을 매각한 것을 알았고 매각대금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다면 乙이 취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와 그 조치가 甲과 丙에게 미치는 효과를 논하시오. (10점)

제 2 문. A는 자신의 집 천장에서 빗물이 새자, 수리공 B에게 수리를 맡겼는데, 일손이 부족한 B는 친구인 C를 데리고 가 수리작업을 시작하였다. 그런데 B가 작업 중에 자신에게 과실 없이 지붕에서 미끄러지자, C가 B를 붙잡으려 시도했고, 그 순간 C는 손에 쥐고 있던 망치를 떨어뜨렸다. 다행히 B를 붙잡는 데는 성공하였지만, 망치가 지붕 아래로 떨어지면서 그 집의 창문유리가 크게 파손되었다.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. (총 20점)

- 1) A는 C를 상대로 창문유리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? (10점)
- 2) A는 B를 상대로 창문유리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는가? (10점)

제 3 문. 甲과 乙은 각각 2억원을 투자하여 공동으로 건물 X를 구매하고 각각 지분 1/2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. 그런데 甲은 乙과 상의도 없이 건물 X를 丙에게 임대하여 주었다. 이 사실을 나중에 안 乙은 丙에게 퇴거 및 건물 X의 인도를 요구하고자 한다. 이는 가능한가? (10점)

안전행정부 시험출제과장



안전행정부

민법(친족상속법제외)<선택>

